

광주 김덕현 세단뛰기-17m07



한국新 영광의 순간

전남 한규철 개인혼영 200m-2분02초30



19일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육상필드경기중 세단뛰기에서 17.07m로 한국 신기록을 달성한 조선대 김덕현이 모래위로 착지하고 있다. /김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9일 경북 김천실내 수영장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일반부 개인 혼영 2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기록한 전남 한규철이 포효하고 있다. /김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기록종목서 금맥 캐다

“편한 마음으로 아시안게임 금 도전”

육상 세단뛰기 금 김덕현

“한국신기록을 경신하고 아시안게임에 임하고 싶었는데 이제 편한 마음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육상 필드 남대부 세단뛰기에서 17m07cm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대회 5연패의 금자탑을 세운 김덕현(조선대 4)은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덕현은 지난 2005년 11월 4회 동아시아 대회에서 16m 79cm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2006년 9월 60회 전국남녀대학육상경기

대회에서 17m06cm로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으나 풍속 때문에 비공인 기록으로 남았다. 하지만 9월 24일 2006년 요코하마슈퍼미트 육상경기대회에서 16m88cm를 뛰어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면서 일찌감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평소 다른 선수들과 달리 ‘감’을 중요시 하는 김덕현은 이날 1차 시기 이후 파울을 하는 등 컨디션이 좋지 않아 한국신기록 경신을 기대하지 않았으나 마지막 6차시기에 17m의 벽을 깨뜨린 것.

김덕현은 “지금 페이스라면 아시안게임에서 17m10cm를 뛰어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 것 같다”며 “남은 기간 스피드를 보완해 반드시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동계훈련 통해 영법 바꾼게 주효”

개인혼영 200m 금 한규철

“10년째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후 마지막으로 울림퓌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19일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남자 일반 개인혼영 200m서 2분02초 30으로 지난해 자신이 세웠던 2분02초91을 0.9초차로 또 다시 경신하고 대회 2연패를 일군 한규철(26·보성군청)은 “동계훈련을 충실히 했고, 페이스가 상승세로 올라온 것을 한국신기록 경신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초등학교 4학년때 수영에 입문 한 후 97년부터 전국체전에 출전, 올해까지 18개의 금

메달을 따냈고, 단체전까지 합하면 26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국내 수영의 간판스타로 군림하고 있다.

지난 96년 일찌감치 태극마크를 단 한규철은 “이번대회 전까지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 내심 노메달의 걱정도 했었지만 동계훈련을 충실히 한 결과가 나타나 다행이다”고 안도했다. 동계훈련동안 지구력 보완과 영법을 바꾼 것이 한 달 만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게 했다는 것.

한규철은 “아시안게임에서도 개인혼영 200m에 출전하는데 평영만 보완하면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소녀역사 이애라 3관왕

전남 유진아도 사이클서 금3

김덕현(조선대 3)이 육상 남자대학부 세단뛰기에서 17m07cm를 뛰어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대회 5연패의 금자탑을 세웠다.

전남의 한규철(보성군청)도 수영 남자 일반 개인혼영 200m에서 2분02초30으로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자신이 작성했던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우며 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광주의 소녀역사’이애라(광주체고 2)는 역도 여고부 75kg급 인상에서 94kg(대회신), 용상에서 125kg(대회신) 합계 219kg(대회신)을 들어올려 3관왕에 오르며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이성(광주체고 3)은 육상 남고 높이뛰기에서 2m10cm를 뛰어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이뤘다.

전남의 유진아(나주시청·동신대)는 사이클 여자일반 스프린트와 단체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따내 지난 17일 500m 독주 금메달에 이어 3관왕에 올랐다.

나아름(미용고 1년)도 사이클 여고부 2km개인추발과 단체추발에서 금메달을 목에걸어 2관왕, 정세영(전남체고 2년)은 인라인롤러 E+P 10,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지난 18일 EP15,000m 금메달에 이어 2관왕, 김지윤(전남체고 2년)도 유도 여고부 78kg급이상과 무제한급에서 2관왕에 등극했다.

광주와 전남 선수단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대회 3일째인 19일 기록종목인 육상과 수영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기록종목의 선전에 힘입어 본격적인 메달레이스에 접어들었다.

이날 현재 광주는 금19개, 은15개, 동14개, 전남은 금 24개, 은 24개, 동26개를 획득했다.

▲광주=박태경은(광주시청)은 육상 남자일반 110m허들에서 13초 72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양궁에서는 남고부 임지완이 30m에서 359점을 쏘 금메달을 따냈으며 여대부 기보배(광주여대 1)는 50m에서 336점을 획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경에서 열린 레슬링 남대부 그레코로만형 84kg의 조효철도 부산대표를 제압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단체종목에서는 하키 남자일반부 조선대가 대구 계명 문화대를 10-0으로 완파하고 동메달을 확보했으며 펜싱 여고부 사브리 이지선(전남여고)도 부산 김지연을 누르고 동메달을 확보했다.

▲전남=김익환(체육고 3)은 육상 남고부 장대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양궁에서는 여대부 이현주(순천대)가 30m에서 금빛과녁을 명중시켰다.

정경호(상무)는 레슬링 남자일반 그레코로만형 60kg에서 금메달을 메겼다.

단체경기에서는 농구 남자일반 목포대가 대전충남대를 62-56으로 제압하고 2회전에 진출했으며 배드민턴 전남산발은 울산현회를 3-0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금메달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김천=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9일 경북 영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남고부 밴텀급 광주대표 김민욱(왼쪽)과 대구대표 신상준 경기에서 김민욱이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 /김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국체전 이모저모

전남 승마 사상 첫 0점 ‘울상’

○... 단일종목으로 1천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승마에서 전남이 사상 초유의 0점을 맞고 울상.

전남은 이번 체전에서 18일 승마 마장마술 0점에 이어 19일 열린 대장애물 종목에서도 0점 수모를 당한 것.

이같은 부진은 지난해까지 전남선수로 대장에 물 8위에 머물렀던 박재홍이 올해 경남으로 이적하는 등 우수선수가 빠져 나갔기 때문.

지난해까지 전남에서 4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던 박재홍은 올해 8천만원을 받고 경남으로 이적해

‘돈 함’을 받아 1위에 오르며 1천80점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해 전남관계자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기도.

학교 선후배 태권도 맞대결

○...대학 소재지 대표팀이 아닌 자신의 고향 대표로 전국체전에 참가한 선수가 학교 후배와 맞대결을 펼쳐 눈길.

이날 영천에서 열린 태권도 남대대학 밴텀급 8강전에서 조선대 김호철(영광·4년)은 광주가 아닌 자신의 고향인 전남 대표로 출전해 학교 1년 후배인 김민욱(3년)과 대결을 펼쳤던 것.

더구나 이 경기는 종료 5초전 조선대 코치진이 심판 판정에 항의를 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까지 펼쳐져 한숨을 쉬는 동료 선수들과 코치 사이에선 좀처럼 나오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기도.

국가대표 초반탈락 이번 속출

○...전국체전 메달 레이스가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국가대표들이 잇따라 초반 탈락하는 등 부진.

여고생 공사이특영(17·광주체고)이 60m 12위, 70m 17위로 부진했고, 배드민턴 차세대 에이스 이용대(18·화순실업고)도 남자 고등부 준결승에서 0-2로 완패 한 것.

이같은 현상은 국가대표들이 아시안게임에 일정을 맞추고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

광주시와 전남도 체육회 관계자들은 “당연히 금메달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초반 부진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지만 의외의 선수들이 선전을 펼치고 있

어 그나마 안도하고 있다”고 설명.

여성 시민 서포터스 응원 인기

○...‘시민과 함께 하는 체전’으로 불리는 제87회 김천체전에서 각 경기장마다 응원전을 펼치고 있는 ‘여성 시민서포터스’가 인기.

이들 여성 시민서포터스는 각 경기장마다 빨간색과 노랑색 옷을 맞춰입고, 노란색 부채와 무지개 색 파라솔을 사용해 전문 응원단 못지않은 응원전을 펼쳐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인기를 독차지.

특히 가장 관람객이 적은 육상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의 기록이 터져나올 때마다 비명을 가까운 환호성을 지르며 관람객들의 동참을 유도해 경기장 분위기를 띄우며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돕기도.

/김천=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